"임란 朝·日 갈등 조정자 '불교' 였다"

이철헌 소장, 종교교육학회 춘계대회서 주장

임란 직후 교역 끊어진 대마도
국교·교역 재개 조선에 요구해
조선, 일본에 유정 스님 파견

日 주요인사 대부분 佛心 돈독
불교, 양국 갈등 조정 '공통분모'
유정·일본 외교승 신뢰가 해결책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은 최악의 관계가 됐다. 이 같은 전란 후 파탄난 조선과 일본 양국의 관계 개선에 '불교'가 조정자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헌 동국대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장은 4월 20일 한국종교교육학회가 '갈등치유와 종교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소장은 '임진왜란 직후 조·일 갈등 해결을 위한 승려들의 활약'을 통해 전란 이후 양국 정세를 분석하고, 조선과 일본의 승려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조선은 임진왜란 전까지 왜구의 약탈을 막기 위해 부산포·제포·염포에 왜관을 설치하고 일정 수준의 무역을 허용하는 회유정책을 폈다. 하지만, 전쟁으로 무역은 끊어지고 매년 대마도에 보냈던 세사미(歲賜米) 200석도 받지 못하게 됐다.

경작지가 적고 쌀이 수확되지 않는 대마도의 경우 빨리 조선과의 교역이 재개되는 것이 시급했다. 이에 대마도주 요시토시는 전쟁 직후인 1599년 사신을 보내고 조선인들을 돌려보내면서 강화를 요청했다. 1600년 일본을 통일한 토쿠카와 이에야스도 조선과의 화친을 적극 추진했지만 조선의 반응은 차가웠다.

1604년 2월 13일 대마도로부터 돌아온 김광이 상소를 올려 "화친을 허락하지 않지 않으면 일본이 군사를 출동시켜 침략할 것"이라 말했으며, 함께 온 다치바나도 "이에야스의 명이라면서 강화를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변란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후 조선은 일본의 사정을 탐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수년간 미뤄 보내지 않았던 탐적사로 유정 스님을 보내기로 했다.

유정이 대마도에 도착하자 대마도주 요시토시는 이 사실을 이에야스에게 통보하고 이에야스는 교토에서 유정을 만나기를 원했다. 이에야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유정 스님이 정식 사신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와의 만남을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로 생각했다. 유정과의 회담에 매우 만족한 이에야스는 회담을 주선한 요시토시에게 히젠에 1,800석의 영지를 주고, 요시토시의 가신인 야나가와에게 1,000석을 줬다.

왜 조선 조정은 관료가 아닌 승려를 사신으로 보냈을까.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일본 주요인사가 독실한 불자였고, 승려들이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요인으로 들었다.

실제 일본을 통일한 도쿠카와 이에야스는 정토종의 열렬한 신도였고, 임란 당시 제2군 대장으로 이에야스의 측근이 된 가토 기요마사는 일련종 신도로 조선에서 데려간 소년들을 일련종으로 출가시키도 했다.

이 교수는 "유정은 전란 당시 기요마사의 적진에 들어가서 기개를 보였고, 기요마사와 일본 외교승들에게 존경받게 됐다. 일본인들에게도 송운대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서 "오랫동안 일본의 외교문서는 승려들이 맡아 왔으므로 같은 승려인 유정이 일본 승려와 만나 외교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유리했다. 또한 양국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다는 인상을 주기에서도 유정이 적임자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조선과 일본의 신뢰를 쌓기 위한 공통분모가 필요했고, 불교가 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계치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을 두루 갖추고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조정한 이들이 바로 두 나라 승려들"이라며 "임진왜란 직후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실마리는 불교였다"고 주장했다.

치유명상으로 신행·포교 확장하자

불광연구원 4월 27일 35차 학술연찬회 개최

음악·경관·사진 명상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 소개



이주연 중앙승가대 겸임교수가 불광연구원이 4월 27일 '치유명상을 통한 신행의 확장과 전법'을 주제로 개최한 제35차 학술연찬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치유명상을 통한 불교 신행과 전법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치유명상을 통한 신행의 확장과 전법'을 주제로 제35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음악·컬러·전통사찰·북(drum)·사진이라는 새로운 매개를 통한 치유명상프로그램이 소개됐으며, 이를 통한 전법론을 모색했다.

'음악을 통한 명상과 치유'를 발표한 이주연 중앙승가대 겸임교수는 음악치유에 대한 실례들과 전법의 측면에서 본 음악치유명상의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이 교수는 악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연주해 봄으로써 심신의 안정과 편안함, 긍정적인 마음상태로의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전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연주하고, 행복한 나로 인해 일어나는 움직임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힐링"이라며 "이런 것들이 진정성으로 통하게 된다면, 대중에게 음악으로 어필할 수 있고, 올바른 전법을 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정진 하는 모습인 진정한 전법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미소선원장 혜림 스님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빨강, 파랑, 노랑색을 이용한 트라이앵글(triangle) 컬러 명상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에 따르면 빨강색은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경제적 욕구와 분노, 적개심이 특징이며, 빨강색에 많이 노출되면 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당뇨, 중풍, 소화기, 궤양 등 성인병에 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색으로는 노란색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란색 역시 많이 노출되면 권위에 쉽게 굴복하고, 화나 분노를 억제하며, 감정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빨강, 노랑, 파란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트라이앵글 구도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전통사찰과 경관치유'를 통해 전통사찰의 배치와 조경, 주변 경관이 가지는 치유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발표했으며, 서영심 동명북명상연구원장은 '북(drum) 치유명상 프로그램'의 사례와 전법교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진을 활용한 명상과 치유'라는 주제로 사진치유명상의 사례와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전법교화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신성민 기자



평창 오대산 월정사 적멸보궁 보물된다

문화재청 1일 지정예고… "조선 전기 양식 가치 높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8호였던 평창 오대산 월정사 적멸보궁<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월정사 적멸보궁'을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平昌 五臺山 中臺 寂滅寶宮)'이란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 등의 기록에 의하면 오대산은 신라 승려 자장(慈藏)이 당나라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가져와 봉안한 후 비석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오대산 신앙의 중심지이자 신라 이후 현재까지 법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불교의 성지다.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이 있는 오대산 중대에는 진신사리 봉안처와 석비가 함께 있다.

내·외부가 이중 건물로 된 불전 건축물인 오대산 적멸보궁은 한국 건축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 오대산 적멸보궁은 정면 3칸·옆면 2칸의 건물 내부에 다시 정면 3칸·옆면 2칸의 건물이 있다. 이는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구조로, 내부 건물과 외부 건물이 시대를 달리하고 내부 공간을 확장·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와 외부 건물 모두 동일하게 정면 3칸, 옆면 2칸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 건물은 익공식(翼工式), 내부 건물은 다포식(多包式) 건축양식이다. 외부 건물은 조선 후기(19세기)의 보편적인 이익공양식 구조를 보이지만, 내부 건물은 조선 초·중기의 심원사 보광전(1374년, 황해도 황주군), 봉정사 대웅전(국보 제311호, 1435년 중창), 숭례문(국보 제1호, 1448년 중수) 등과 유사한 고식기법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내·외부 이중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서 "내부 건축물은 구조·장식적인 면에서 조선 전기의 다포식 목조건축양식을 잘 유지하고 있어 건축·예술·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힐링과 종교의 상관관계는?

서강대 연구팀, 5월 4~5일 국제학술대회

종교와 힐링의 접근 방향에 대해 논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서강대 종교와 힐링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사업팀은 5월 4~5일 교내 김대건관에서 '제2차 종교와 힐링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교와 힐링: 다양한 현대적 접근'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김동규(서강대)의 '무속 치유의 종교적 원리' △인요한(연세대)의 '종교와 힐링에 대한 의학적 성찰'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의 '명상과 힐링' 등이 발표됐다.

또한 사미 아이아두와함 사우디 아라비아 문화원장이 이슬람과 힐링에 대해서 발표하며, 스티븐 엥글러 캐나다 몬트로얄대 교수는 힐링과 종교에 대한 이론화 연구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서강대 연구팀은 "다양한 종교 전통에서 이뤄지는 힐링에 대한 여러 현대적 접근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며 " 복잡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되새기며 참된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